

2022학년도
석사학위논문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에 관한 연구:
생태학적 계시와 인식의 네트워크

A Study on 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 in Gregory Bateson:
A Network of Ecological Revelation and Epistemology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론신학전공

권성일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에 관한 연구:
생태학적 계시와 인식의 네트워크

지도교수 전 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론 신 학 전 공

권 성 일

권성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류재원 

부심 이상현 

부심 김진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12월

그레고리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2023·2 권성일

목 차

목차	i
국문초록	vii
1. 서론	1
1.1. 연구동기와 목적	1
1.2. 연구방법과 구성	4
2.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삶과 생애	6
2.1.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어린 시절	6
2.2.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학자로서의 활동	8
2.2.1 1930년대, 뉴기니에서 네이븐(Naven)과 분열생성 (schismogenesis)	8
2.2.2 1936년 발리에서 마가렛 미드와 시각 인류학	9
2.2.3 2차 세계대전 전후	10
2.2.4 정신의학, 알코올 중독, 비언어적 의사소통	12
2.2.5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이중구속	13
2.2.6 ‘마음의 생태학’과 ‘정신과 자연’ 그리고 ‘마음과 물질의 대화’	14
2.3.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학문이 끼친 영향들	17
3.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	20
3.1.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일치	21

3.1.1. 칼 융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에 대한 베이트슨의 해석--	22
3.1.2. 두 개념의 상호연관성 -----	23
3.2. 살아있는 세상은 마음에 의해 구성된다 -----	25
3.2.1. 마음: 관계를 연결하는 패턴 -----	27
3.2.2. 베이트슨의 사이버네틱스 이론 -----	30
3.2.3. 패턴들을 연결하는 패턴들 -----	32
3.3. 마음의 생태학 -----	33
3.3.1. 성스러움의 인식론을 향하여 -----	34
3.3.2.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	36
4.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생태적 인식론으로 계시와 하나님 이해----	39
4.1. 전통적인 기독교의 계시 이해-----	41
4.1.1. 폴 틸리히의 계시와 현대적 의미 -----	41
4.1.2. 칼 바르트의 계시와 자연신학 -----	43
4.1.3. 여전히 남아있는 계시에 대한 질문들 -----	45
4.2.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베이트슨의 생태적 인식론 -----	47
4.2.1. 조롱받지 않는 하나님(the Unmoked God) -----	48
4.2.2. 계시 - 신과 피조 세계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	50
5. 결론 -----	53
참고문헌 -----	57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계시와 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을 중심으로 계시와 인식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이트슨은 역사적이며 제도적인 종교의 지평을 생태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종교 개념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종교 개념을 마음, 자연, 생태의 패턴과 연결하여 심도 있게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생태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그리고 의식의 제한된 지평을 넘어선 성스러움의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의 관점에서 종교의 의미를 조명하였다. 그에게 종교는 살아있는 것들의 근거가 되는 불변적 체계와 본성과 관계된 지혜이다.

오늘날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적인 문제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줄어든 역동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변화한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과 인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그릇된 사고와 의식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들의 원인이 아닌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계시에 대해 고찰해보고,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계시의 수용자로서 피조 세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을 비롯한 그의 사상이 오늘날 신학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그레고리 베이트슨, 계시, 인식론, 생태, 정신, 성스러움

1. 서론

1.1. 연구동기와 목적

오늘날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전통과 그 바탕 위에 세워진 신학적 탐구를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실재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적 경험과 체험을 넘어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의 이해라는 토대 위에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과학의 발달로 인한 신학의 응답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차원적이며 다상황적인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새롭게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 1947-)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했다.’는 명제를 시작으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가까이 오시려고 하며, 사람들의 신앙과 신뢰를 일깨우며,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에 방향성과 모양과 토대를 제공해주며,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주장한다.¹⁾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가 주체적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해방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방적인 계시의 수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강력한 요청이다. 벨커는 신학의 영역, 곧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자기검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과 공적인 담론의 영역에서, 혹은 현대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 앞에서’ 책임 있게 대답하는 심사숙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²⁾ 즉,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인간의 삶과 역사에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시며, 오늘날 인간의 삶과 역사는 어떻게 계시를 수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 미하엘 벨커/오성현 옮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72.

2) Ibid., 73.

위에서 언급한 신학의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과제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큰 신학적 과제는 생태적 위기와 문제에 대한 신학적 응답일 것이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극심한 폭력과 고통 속에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간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들, 곧 지구 생태계 전체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 신학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다. 21세기를 1/5이상 지나고 있는 오늘날에도 제대로 된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된 그리스도교 신학 서적이 많지 않다. 용어 또한 Ecological Theology, Eco-Theology, Green Theology 등 통일된 신학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생태 문제는 여러 신학적 과제 중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응답해야 할 과제이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 받으소서』 (Laudato Si')를 발표함으로써 생태 문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분석을 담아내었다. 그는 회칙을 통해 이렇게 선언한다.

생태 문화는 환경 훼손, 천연자원의 고갈, 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련의 신속한 부분적 해답들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공세에 대항하는 다른 시각, 사고방식, 정책, 교육 계획, 생활 양식,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최선의 환경 보호 운동도 동일한 세계화의 논리에 빠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만을 찾는 것은, 실제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세계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는 것입니다.³⁾

이는 현대인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신학하는 모든 이들에게 긴급하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문제에 대해 방법론적이며 기술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태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교 영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학 위에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통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언급한 오늘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긴박한 생태적 위기의 통곡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계시와 자연의 세계가 어떻게 접촉할

3)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89-90.

수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여전히 마음과 생태의 사색에 큰 영감을 주는 사상가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 1904-1980)의 성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트슨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유기적인 관계와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통전적 인식론을 제공한 위대한 사상가이다. 모든 생명체의 진화와 활동이 정신의 과정이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러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간혀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고 더 넓은 세계로 모두를 이끌고 있다. 또한, 데카르트나 플라톤 혹은 오늘날에 만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를 뛰어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종교적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줄 것이다.

이 논문은 정신⁴⁾과 자연, 그리고 마음과 물질을 깊은 성찰과 사유를 통해 이들 관계의 필연적이며 순환적인 인과관계와 단계적인 논리 유형을 가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이론 살펴볼 것이다. 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정신, 마음, 그리고 생태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통찰하였다. 그는 자연 현상에서 드러나는 패턴과 질서를 깊이 연구하였고, 특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메타 패턴(Meta Pattern)’을 추구하고 이론화하였다. 베이트슨에게 성스러움이란 마음과 정신의 과정이다. 그 정신의 과정은 감히 천사도 두려워하여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며, 모든 자연과 만물이 생동하고 진화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 촌촌한 정신의 과정과 관계를 통해 살아있는 것들은 신적 존재를 경험하고 이해한다.

그동안 그의 연구가 단순히 시스템 이론과 정신분석학에서만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신학과 종교학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의 신에 대한 이해 또는 정신과 생명에 대한 이해는 겉으로 보이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결코 그의 사상이 성서적이지 않거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이해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베이트슨은 이론은 그동안 편협하게 이해했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크게 확장 시켜줄 것이다.

4) 베이트슨의 한국어 번역본은 베이트슨의 핵심 단어 Mind에 대해서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베이트슨이 표현한 Mind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신과 마음이라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나, 베이트슨에게는 모두 Mind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정신으로 번역된 것을 Spirit이나 Soul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베이트슨의 마음 개념에 관한 명료한 연구로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연구: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63 (2013)를 참고하라.

본 연구는 베이트슨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연에 대한 이해⁵⁾를 심화해나갈 것이며, 두 이해가 베이트슨의 사상에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증하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하나님 이해의 의미와 통찰을 통해 긴박한 생태적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한 생태적 활동과 창조 세계 보전이라는 목표를 뛰어넘는 정신과 자연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이론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있다. 그 누구보다 세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사색했던 그의 사상과 이론은 오늘날 종교와 그리스도교를 연구하고, 마음과 생태에 대해 연구하는 이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줄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본문 2장에서는 베이트슨이라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전기를 소개하고 그의 학문적 과정과 성과를 안내하고자 한다. 생물학, 동물학, 인류학을 넘어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중 구속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학문적인 발전을 거듭한 베이트슨은 그가 남긴 핵심 저작 『정신과 자연(*Mind and Nature*)』, 『마음의 생태학(*Steps to Ecology of Mind*)』, 『마음과 물질의 대화(*Angels Fear*)』⁶⁾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하였다.

3장에서는 위의 언급한 세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탐구하여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말하는 ‘성스러움’(The Sacred)이 무엇인지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조명한

5) 베이트슨에게 자연(Nature) 또는 생태(Ecology)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범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베이트슨에게 자연 또는 생태는 정신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범주이다. 그렇기에, 베이트슨의 자연 혹은 생태의 개념에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뿐 아니라 정신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무작위적인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통해 새로운 것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기계,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까지도 살아있는 것에 포함된다. 베이트슨이 말하는 정신과정에 대해서는 본 논문 3장 두 번째 쪽지 ‘살아있는 세상은 마음에 의해 구성된다.’에서 자세히 다룬다.

6)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1972년에 『마음의 생태학』(*Steps to an Ecology of Mind*)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70년대 후반부터 그녀의 딸인 메리 케서린 베이트슨(Mary Catherine Bateson, 1939-2021)의 도움을 받아 오랜 세월을 걸친 연구와 사색이 담긴 두 권의 중요한 저서 『정신과 자연』(*Mind and Nature*, 1979)과 『마음과 물질의 대화』(*Angels Fear: Towards an Epistemology of the Sacred*, 1987)을 출판하였다.

성스러움의 인식론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종교의 의미와 오늘날 생태 문제를 함께 조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기존 그리스도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이자 유산인 ‘계시’와 ‘하나님 이해’에 대해 기술하고,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학이 설명하고 있는 계시와 하나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과의 접점을 찾아낼 것이다. 베이트슨의 인식론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하나님 이해를 살펴볼 때, 새로운 인식과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최종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에 대한 고찰과 새로운 인식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자연, 그리고 마음과 물질에 대한 사고뿐 아니라,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세련되고 풍성하게 그려낼 것이다.

2.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생애와 삶

2.1.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어린 시절

베이트슨은 풍부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세 번째 막내아들로 1904년 5월 9일 영국의 그랜드체스터에서 태어났다. 베이트슨의 아버지 윌리엄 베이트슨(William Bateson, 1861-1926)은 캠브릿지 대학교에 유전학과를 설립한 설립자였다. 그리고 윌리엄 베이트슨의 조교가 찰스 다윈의 손녀인 노라 바를로우(Nora Barlow, 1885-1989)였다고 한다. 1900년에 윌리엄은 그레고르 멘델(Gregor Mendel, 1822-1884)이 1865년에 실시한 완두콩 이종 교배(crossbreeding)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이종교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달아, 멘델의 사상을 과학계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이론이 교착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윈이 제시했던 종의 자연선택 이론은 혼합 유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의 가장 큰 약점은 한번 선택된 특성이 미래 세대에 혼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혼합 유전은 상속된 기능이 세대에 걸쳐 변경되지 않고 점프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했다.

윌리엄 베이트슨은 이러한 다윈의 약점을 멘델의 우성과 열성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전적 특성이 세대에 걸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증명하였다. 7) 멘델의 재발견은 진화론의 중요한 돌파구였고, 윌리엄 베이트슨은 ‘유전학(Genetics)’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윌리엄 베이트슨은 멘델의 이름을 따서 그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레고리(Gregory)라고 정하였다.8) 그런데도 윌리엄 베이트슨은 유전학계에서 소외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당시 지배적이었던 작고 지속적인 변화의 축적에 근거한 통계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축적에 근거한 통계가 종종 발견되는 불연속적인 변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윌리엄은 발생학을 공부하였고, 종의 형태와 대칭의 합법적인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9) 이러한 윌

7) Brian Staggoll, "Gregory Bateson at 100,"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7. 3 (2006), 122.

8) Ibid., 122

9) Ibid., 122

리엄 베이트슨의 노력은 그의 아들 그레고리 베이트슨에게 유산으로 남게 된다.

그레고리에게는 존과 마틴이라는 두 형이 있었고, 생물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부모를 따라 훌륭한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첫째 형 존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영웅적 공로로 십자 훈장을 받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사망했다. 또한, 둘째 형 마틴은 군 복무에서 돌아왔지만,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큰 형 존의 생일에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런던 신문에서 ‘런던에서 목격된 가장 극적이고 고의적인 자살’로 묘사되어 보도되었다.¹⁰⁾

그레고리는 아버지를 따라 처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동물학을 외면하고, 인류학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데이비드 립셋(David Lipset, 1951-)의 말에 따르면 베이트슨은 ‘가장 흥미로운 동물군은 세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¹¹⁾ 그레고리는 케임브리지 동료 앨프리드 래드클리프 브라운(A. R. Radcliffe-Brown, 1881-1955)의 영향으로 시드니에 사회 인류학 의장을 설립했고, 192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태평양으로 향했다. 그는 뉴기니로 이주를 하며 ‘나는 어머니에게서 도망쳤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¹²⁾ 그러나 어머니 베이트리스 베이트슨(Beatrice Bateson, 1870-1941) 입장에서는 이미 두 아들을 잃은 후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베이트슨은 뉴기니에서 네이븐(Naven)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자로서의 족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진화론과 유전학 그리고 동물학에 대한 급진적이며 열정적인 학문의 가풍을 가졌던 베이트슨은 그의 아버지 베이트슨의 작업을 함께 하며 생물학과 패턴에 대한 이해했을 것이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형들을 잃으며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전쟁의 이유, 그리고 나아가 인류에 관한 관심을 두게 되었을 것이며, 베이트슨이 전개해나갔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10) David Lipset, *Gregory Bateson: The Legacy of a Scientist* (Boston: Beacon Press, 1982), 93.

11) Ibid., 114.

12) Ibid., 125.

2.2.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학자로서의 활동

2.2.1. 1930년대, 뉴기니에서 네이븐(Naven)과 분열생성(schismogenesis)

베이트슨의 학문적 성과는 그가 뉴기니에서 레드클리프 브라운과 함께 인류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베이트슨은 뉴기니의 세픽강 주변에서 현장조사와 연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태평양 언어로 강의를 하곤 했다. 레드클리프 브라운은 당시 사회를 기능적으로 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부분의 집합체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베이트슨의 입장은 달랐다. 베이트슨은 그가 수집한 현장 작업의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은 부분적인 조각들은 레드클리프 브라운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통합된 주제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베이트슨은 현장조사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상심에 빠졌다. 그 무렵, 베이트슨은 그의 소중한 파트너이자 아내가 될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 1901-1978)를 만났다. 베이트슨은 미드와 당시 그녀의 남편이었던 레오 포툰(Reo Fortune, 1903-1979)과 함께 뉴기니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격렬히 나누었고, 다시 인류학에 대한 열정을 되찾게 되었다.¹³⁾

당시 베이트슨의 주된 아이디어는 분열생성(schismogenesis)이었고, 그의 첫 번째 책인 『네이븐』(*Naven: A Survey of the Problems Suggested by the Composite Picture of New Guinea Tribe Drawn from Three Points of View*, 1958)에서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드러났다. 이 책을 시작으로 베이트슨의 고유한 인식론적이며 사이버네틱스 탐구 여정이 시작되었다.

『네이븐』은 당시 세픽강 중류 지역의 헤드헌팅 부족인 이아트물(Iatmul) 부족이 수행한 정교한 의식을 말한다. 이 의식은 부족 구성원 중 생애 처음으로 사냥을 완수한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는데, 그 축하 방식이 매우 낯설고 이질적이다. 네이븐을 표현하는 퍼포머(performer)들은 한껏 과장된 옷을 입고 서로 성 역할을 뒤바꾸거나 동성애적 동작 같은 것을 거리낌 없이 취하고, 심지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아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는 비상식적인 연출을 시도한다. 일상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를 벌이는 네이

13) Brian Stagoll, "Gregory Bateson at 100," 123.

본의 의식행위를 매개로 베이트슨은 이아트물 부족의 사회 조직과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상호 작용의 고리에서 야기되고 축적되는 보완적이거나 대칭적인 어긋남에 대해 ‘분열생성(schismogenesis)’이라는 개념 체계를 고안하여 그들의 심리와 사유 패턴을 분석했다.¹⁴⁾ 분열생성의 형태는 대칭적 분열(Symmetrical schismogenesis)과 상보적 분열(Complementary schismogenesis)로 나뉜다. 대칭적 분열은 각 그룹이 자신을 뺏내거나, 다른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행동이 확대될 때 발생하고, 상보적 분열은 상호간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각각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 패턴은 결혼, 국제관계, 군비 경쟁과 같은 복잡한 수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이트슨은 네이븐 의식이 경쟁적인 친족 그룹 간의 대칭 분열이 상호 파괴적 관계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규제 장치라고 생각했다.¹⁵⁾ 네이븐의 정교한 의식과 춤은 그룹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매우 가부장적인 부족 문화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이아트물 부족의 의식이 가진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열생성에 대한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2.2.2 1936년 발리에서 마가렛 미드와 시각 인류학

베이트슨은 1936년 싱가포르에서 마가렛 미드와 결혼하였고 함께 다음 연구지인 발리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베이트슨과 미드는 1936년 3월부터 1938년까지 머무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교차 문화 연구에 관심을 두었던 정신분열증 연구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발리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기준에 따르면 발리인들은 쉽게 무아지경에 빠졌고, 그들의 삶은 서구 정신의학이 정신분열증으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베이트슨과 미드는 발리 문화에서 어떤 문화적 양육 조건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했다. 또한, 발리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지역으로 베이트슨과 미드를 매료시켰고, 그들이 인류학에서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하였다. 베이트슨과 미드는 약 사진 25,000장, 16mm 영화필름 12시간 분량을 만들어내었다.

14) 김성은, “사이버네틱스 서정: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백남준의 ‘마음’ 접속사,” 「NJP 리더 no.7 -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2017), 151.

15) David Lipset, “Author and Hero - Rereading Gregory Bateson: The Legacy of a Scientist.” *Anthropological quarterly* 78, no. 4 (2005), 913.

예측과 분류를 할 수 없는 표현과 행동을 신속하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촬영물 중 759장의 사진들을 추려 『발리인들의 개성: 사진 분석』 *Balinese Character: A Photographic Analysis*(1942)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은 100개의 주제별로 각 5 - 10장의 사진으로 된 타블로와 이에 대한 텍스트가 동반되는 구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설명 안에 발리 문화에 관한 기술뿐 아니라 사용한 카메라의 물리적 구성과 촬영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적었다는 점이다. 사진들이 발리인의 삶을 투명하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카메라를 든 인류학자의 개입에 의해 포착되었고 이것이 다시 편집에 의해 배치되었다는 사실, 이 세 층위의 복합적 작용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¹⁶⁾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베이트슨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사진이라는 텍스트로 언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비언어적 신체 뉘앙스를 포착하는 것이었다.¹⁷⁾ 이는 서로 관련이 있는 사진들 나란히 배치하여 문화적으로 표준화된 다양한 유형의 행동 사이의 무형적 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베이트슨이 찍은 발리 어린이들의 사진은 흥분의 패턴과 부모들의 모습에 대한 좌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한 후 베이트슨과 미드는 발리 남성들을 관찰하고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고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2.2.3 2차 세계대전 전후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고 베이트슨은 CIA의 전신인 전략 서비스국(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에 합류하면서 전쟁 중 그리고 전쟁 직후 미국 문화와 성격 연구를 위한 국가 성격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베이트슨은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인도와 실론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정립된 몇 가지 인류학적 아이디어를 버마 로어에서 미국 정보 기관에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지루하게 낭비된 2년이였다.¹⁸⁾

베이트슨은 그의 전시 경험과 지성이 인류학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16) 김성은, “사이버네틱스 서정: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백남준의 ‘마음’ 접촉사,” 151.

17) Staggall Brian. “Gregory Bateson at 100,” 125.

18) David Lipset, *Gregory Bateson: The Legacy of a Scientist*, 175.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 여기서 베이트슨의 공헌은 문화내 다양성을 인식하고 폴라 패턴(Polar Patterns)을 강조하며, 그 당시 대부분의 원거리 문화 연구(The Study of Culture At a Distance)보다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¹⁹⁾ 전쟁이 끝난 후 베이트슨은 인류학에서 임상 심리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쟁 후 베이트슨은 아내 미드와 함께 1946년에 특별한 학제간 그룹인 ‘메이시 위원회’(Macy Conferences on Cybernetics)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이 그룹은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1894-1964)를 중심으로 한 수학자 및 사회과학자 그룹으로 신경생리학, 물리학, 전기통신공학, 수학, 컴퓨터공학, 생태학, 정신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였다.²⁰⁾ 이는 베이트슨에게 컴퓨터 어휘, 형식 논리 및 통신 이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베이트슨과 미드는 그들의 문화 인류학 연구를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여 어떻게 사회가 조직화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들은 새로운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수학적 정확성을 사회적 과정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²¹⁾

유기체와 같이 기계는 입력을 통해 출력을 생성하고,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변하기 위해 순환할 때 기계는 자신의 행동이 영향에 반응하는 수단을 획득한다. ‘출력’이 ‘입력’이 된 것은 피드백이 기계를 목표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기계에 목적이 있는 ‘정신’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이러한 순환 고리(Feedback Loops)는 관계의 추상 패턴이다. 그것들은 물리적인 구조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내장되어 있지만, 실제 구조와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은 기계와 유기체를 결합할 수 있으며 기계는 유기체의 확장으로 볼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베이트슨에게 피드백은 시스템이 정보에 자가 수정 방식(self-corrective ways)으로 반응하는 능력, 즉 삶의 일반적인 속성,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었다.²²⁾ 이것은 베이트슨이 남은 생애 동안 치열하게 연구하고 개발했던 아이디어였다.

베이트슨이 발견한 순환 고리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네틱스 사고방식의 초점은 에너지의 선형적 교환보다는 순환하는 정보 혹은 아이디어의 패턴과 원형이라는 형태에 있

19) Richard Basham, “Gregory Bateson (1904-1980): Obituary.” *Oceania* 52, no. 1 (1981), 3.

20) 김성은, “사이버네틱스 서정: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백남준의 ‘마음’ 접촉사,” 152.

21) Stagoll Brian. “Gregory Bateson at 100,” 125.

22) Ibid. 126.

었다. 이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생물학과 사회 과학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과 자연을 일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발전하게 된다.

2.2.4 정신의학, 알코올 중독,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성과

베이트슨은 1947년 마가렛 미드와 별거 후 1950년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베이트슨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강의하던 하버드에 다시 고용되지 못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다. 그는 그곳에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나갔다. 베이트슨은 유르겐 루에쉬(Jurgen Ruesch, 1910 - 1995)와 함께 랑글리 포터 클리닉(Langley Porter Clinic, 지금의 UCSF Langley Porter Psychiatric Hospital and Clinics)에서 일하면서 심리 치료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일하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Alcoholics Anonymous (AA))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베이트슨은 AA의 12단계 프로그램(The Twelve Steps Programs)이 사이버네틱스 인식론과 매우 유사하기에 알코올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작업은 나중에 그의 논문 ‘자아의 사이버네틱스: 알코올 중독이론(*The Cybernetics of Self: a Theory of Alcoholism*, Bateson, 1971)’의 주제가 되었다.

베이트슨이 제안한 AA의 12단계 프로그램은 오직 술병의 보완적인 무언가를 채택해야 알코올 중독을 극복할 수 있고, 술병에 의해 통제되지도, 극복되지도 않는 더 큰 힘을 받아들여야만, 술병과의 싸움이 끝난다고 설명했다.²³⁾ AA의 12단계 프로그램은 의식적인 통제를 포기하는 것에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이버네틱스 인식론을 채택되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만들어나간다. AA의 예는 나중에 더 큰 범위의 영역에서 논리 오류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산업 문명의 중독적인 소비 패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이며 관리적인 해결책들로 생태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베이트슨에게 있어 인류는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부분이며, 자연은 우리가 이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시스템의 한 부분이 더 큰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시도는 반드시 재앙으로 이어진다.²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베이트슨은 성서를 인용하며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

23) Ibid., 126.

신다'고 말한다.²⁵⁾

발리의 사진 연구의 연장선에서, 베이트슨은 가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행동을 조절하고 의미를 규정하는데 있어 준언어(paralanguage)와 몸짓 및 운동적 교환의 역할을 연구했다. 그에게 있어서 의미는 그룹 내에 있어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야만 완전히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²⁶⁾ 또한, 루에쉬와 함께 집필했던 『의사소통: 정신의학의 사회적 모체』(*Communication: The Social Matrix of Psychiatry*, 1951)에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정신의학 이론의 기초로서 정보의 사이버네틱스 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의사소통 시스템이 상호 작용 패턴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베이트슨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2.2.5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이중구속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전된 하나의 중심 개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코딩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는 그것이 나타내는 주제와 관련된 모양 또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디지털 신호는 외부의 사건과 다르거나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사소통은 두 채널을 통해 동시에 발생한다. 베이트슨은 이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 - 1947)와 버트런드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 - 1970)의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 1910)의 2번째 장, 수학 원리의 논리적 유형 이론 ‘Theory of Logical Types in Principia Mathematica’에서 ‘논리 유형 이론’ 방법을 채용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베이트슨은 아날로그적 의사소통이 디지털보다 더 높은 수준 또는 더 높은 논리적 유형이라고 주장한다.²⁸⁾ 즉, 아날로그의 메타 메시지(the Analogic Meta Message)는 디지털 메시지에겐 컨텍스트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한한다. 그리고 메타 메시지는 올바른 컨텍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배열 또는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의 또 하나의 베이트슨의 깊은 통찰이다.

24) Ibid., 126.

25)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3), 181-193.

26) Brian Staggoll. “Gregory Bateson at 100,” 126.

27) Ibid., 127.

28)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서울: 까치, 1998), 134-139.

수직적 등급 분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수준이 있으며 항상 모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및 메타 메시지의 등급을 매기고 분류되어야 한다. 이 분류 작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혼란을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즉, 메시지를 논리적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능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²⁹⁾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수학 원리』에서 집합(Class)과 그 구성원(Member) 사이에는 항상 계층적 간격인 불연속성이 있다고 제안했고, 하나의 집합이 구성원으로 잘못 인식이 되면, 논리적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베이트슨은 자연(Nature)은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논리적 유형의 위반과 수준의 혼동 같은 사건은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³⁰⁾ 그리고 대화에서 의사소통 수준이 혼동이 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모순과 역설이 생겨나 그 결과가 행동으로 이어진다. ³¹⁾ 이 아이디어로 베이트슨은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인 이중구속이론을 “정신분열증 이론을 향하여”(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ateson et al., 1956)라는 논문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2.2.6 ‘마음의 생태학’과 ‘정신과 자연’ 그리고 ‘마음과 물질의 대화’

1972년 베이트슨은 그의 역작 『마음의 생태학』 (*Steps to an Ecology of Mind*)을 출판했다. 이 책은 발리의 문화, 진화론,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돌고래와 사이버네틱스 등 그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주된 이론은 ‘시스템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베이트슨은 ‘시스템이론’을 ‘생태학’이라고 쓰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베이트슨은 그의 책을 통해 어떤 사실이나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시와 예화를 통해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줄 것을 권유한다.³²⁾ 그리고, 그는 추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고하거나 사물을 보지 않고, 실천을 통

29) Ibid., 140-143.

30) Brian Staggoll. “Gregory Bateson at 100,” 127.

31) Bateson, G., Jackson, D. D., Haley, J., & Weakland, J.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al Science* (1956), 254-256.

32) Peter Harries-Jones. *A Recursive Vision: Ecological Understanding and Gregory Bates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5), 83.

해 가꾸어가는 명료한 경험을 더욱 추구한다.

베이트슨은 ‘마음의 생태학’을 출판한 이후,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산타크루스 대학(the University of Santa Cruz)의 초기 녹색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생태적 위기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연설을 하며 활동하였다. 그는 본인의 저서 ‘마음의 생태학’에서 생태 위기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이제 나는 지난 100년 동안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은 만약 유기체나 유기체의 집합체가 자신의 생존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도록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적응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기체의 ‘진보’는 파괴된 환경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만약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³³⁾

베이트슨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존중하는 보수주의자처럼 보인다. 1970년대 폐암으로 죽어가던 베이트슨은, 그의 딸 캐서린 메리 베이트슨(Mary Catherine Bateson, 1939-2021)의 도움으로 2권의 책을 더 펴내게 된다. 첫 번째 책은, 『정신과 자연』(*Mind and Nature*)이다. 이 책은 베이트슨이 다시 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화하는 방법과 마음의 구조에 대한 상호 관계와 사고를 발전시킨 것이다.³⁴⁾ 그의 책 『정신과 자연』에서 베이트슨은 정신(Mind)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에게 정신은 사고하는 인간의 외부에 있는 자연계의 커다란 부분 또는 수많은 부분들의 한 반영이 되었던 것이다.³⁵⁾

그는 물질을 마음으로 환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 마음을 물질의 패턴과 구조로 다시 들여오길 시도했다. 즉, 마음은 물질 위에 있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안에 내재하는 것이다.³⁶⁾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신체 내부를 벗어나 외부로 확장된다.

33) 그레고리 베이트슨/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서울: 책세상, 2006), 679.

34)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13.

35) Ibid., 14.

36) Brian Staggoll. “Gregory Bateson at 100,” 131.

프로이트 학파의 심리학은 마음의 개념을 내부로 한정해서 신체 내부에 있는 전반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율적이고, 습관적이고, 방대한 범위의 무의식 과정을 포함시켰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다.³⁷⁾

베이트슨의 주장에는 자연(Nature) 전체가 마음의 특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마음과 동일하게 여기며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외부의 구경꾼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의 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식론에 대한 베이트슨의 생각이 『정신과 자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인식론은 항상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탐사침의 바늘 끝은 항상 탐구자의 마음 속에 있다.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답변은 무엇인가? 나의 지식은 생물계 전체, 곧 창조의 세계에 대한 드넓은 지식 가운데 하나의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신념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베이트슨의 마지막 책 『마음과 물질의 대화』 ‘*Angels Fear*(1987)’는 케서린 베이트슨이 베이트슨 사후 썼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불완전한 원고들을 모아 공동저자로 출판했다. 이 책에서 베이트슨은 인간의 파괴적인 행동을 초자연주의(Supernatural)와 물질주의(Mechanical)에 양쪽 모두에 기반한 것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묘사한다. 이 책에서 베이트슨의 목적은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악몽 사이 어딘가에 종교의 타당한 자리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³⁹⁾

실제로 베이트슨에게 대다수 인간이 그들이 사는 세계의 복잡한 규칙성과 연결짓는 패턴은 늘 종교였다.⁴⁰⁾ 그리고 과학이 밝힐 수 없는, 지식의 한계를 근거로 증명할 수 없는, 특수한 유형의 신념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주장을 해야만 할 때,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며 과학은 증명을 슬그머니 피해갔지만, 베이트슨에 따르면, 적어도 종교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증명 불가능한 명제를 가장 정교한 기술 노력마저 회피하지 않으면서, 가장 집요하게 파헤치는 특성을 가진 인지 체계이다.⁴¹⁾

마지막으로, 베이트슨은 『마음과 물질의 대화』에서 ‘신성함(the Sacred)’에 대해

37) 그레고리 베이트슨/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694.

38)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110.

39) Brian Staggoll, “Gregory Bateson at 100,” 131.

40)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62.

41) Ibid., 267.

언급한다. 그에게 신성한 것이란, 우리 모두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신과정의 통합된 짜임 또는 패턴이다.⁴²⁾ 그것은 각 부분을 하나의 질서로 연결하게 하며,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과 통일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패턴과 짜임이 연결된 것은 베이트슨에 따르면 ‘신성한 것’ 또는 ‘성스러움’이다.

베이트슨은 죽기 직전까지 물질주의와 기술 사회에서 ‘성스러움’을 상실한 인간의 맹목적인 정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긴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⁴³⁾ 성스러움의 상실은 위에서 언급한 정신과정의 패턴과 짜임의 붕괴 혹은 파괴일 것이다. 이 정신과정의 패턴과 짜임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생태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본질이다. 오늘날 인간과 문명은 이러한 체계적 구조와 본질에 대한 왜곡과 경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파괴적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정과 문화와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적 구조와 본질을 어떻게 더욱 명료하게 발견하고 진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かの 과제로 남아있다.⁴⁴⁾

2.3.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학문이 끼친 영향들

베이트슨은 그의 삶을 보면, 매우 근대적인 유산으로 매우 현대적인 기술과 사고의 기틀을 만들어내었다. 그는 여전히 다윈을 비롯한 근대 과학자들의 유산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고, 아버지를 따라 유전학과 동물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또, 그는 특별히 현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본인의 글을 작성하면서 현대 주요 철학자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매우 독특한 사고와 본인만의 논리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의 책에서는 펼쳐나가고 있다.

베이트슨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적 토대는 러셀의 ‘유형이론’(theory of type)을 근거로 한 논리 체계(혹은 논리 계형)일 것이다. 베이트슨에게 러셀의 유형이론이 주는 의미는 사실과 논리 사이의 심연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지적이며, 러셀의 이론은 논리적 연관 관계를 통하여 심연의 가교와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⁴⁵⁾ 러셀의 유형이론의 핵심은 클래스(class)와 요소(members)의 위계적 분리이다. 이러한 위계

42) Ibid., 268.

43) Brian Staggoll. “Gregory Bateson at 100,” 131.

44)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철학연구』 86 (2009), 267.

45) Ibid., 254.

의 지위가 서로 무너지고 모순될 때 역설(paradox)의 문제가 발생된다. 오늘날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 정신분열증의 이중구속이론을 처음 발견한 학자로 베이트슨이 크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이중구속 이론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논리게형이 무너진 역설의 문제에 의한 하나의 결과이다. 이중구속 이론은 정신분열증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지 밝혀내었다. 이는 심리학에서 의사소통의 패턴이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족치료(Family Therapy)와 전신 요법(Systemic Therapy)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러셀의 유형이론을 기반으로 한 베이트슨의 연구는 그의 새롭고 독특한 인식론을 만들어내었다. 사이버네틱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시스템이론과 같은 그의 새로운 이론들의 발전들은 그의 구성주의적 인식론으로 귀결된다. 그는 자신의 인식론을 가리켜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이라고 명명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식론들의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비판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한다.⁴⁶⁾ 베이트슨의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 1928-2021)와 바렐라(Francisco Varela, 1946-2001)의 구성주의적 인식론과 시스템이론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⁴⁷⁾ 또한, 구성주의적 체계이론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체계이론가인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의 이론에도 깊이 관여하였다.⁴⁸⁾ 특히 루만의 ‘자기생성’(Autopoiesis)이라는 키워드는 베이트슨으로부터 많은 통찰을 얻은 마투라나와의 지적 공명 속에서 더욱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⁴⁹⁾

그의 사고는 근대는 물론 오늘을 넘어 이미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그가 젊었을 때, 이미 그는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사회 과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46)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의 책 『정신과 자연』 2장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Every School Knows..)’라는 풍자적인 제목과 함께 가차 없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소제목 ‘과학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부터 시작하여 ‘지도는 땅이 아니다,’ ‘객관적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다.’ 등 그의 인식론을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명제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47)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257.

48) 사회학자로서 시스템 체계이론을 만들어낸 니클라스 루만의 ‘자기생성’(Autopoiesis)에 대한 고찰은 ‘자기비움’(Kenosis)이라는 기독교의 신학적 유산과 만나,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사유의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전철,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 자기비움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하여 -”. 『신학과 사회』 31 (2017), 9-40. 참조.

49)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258.

개척했다. 그리고 스스로 조직하는 생태학의 전인적이며 진화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과학적 발견이라는 모델의 경험주의와 귀납적 사고에 대한 그의 비판은 또한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사상은 비록 아주 논리적인 틀 안에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거나, 과학적 근거들을 나열해 논리를 보충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의 사상은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사고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21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제의식들(예를 들면 생태적 문제와 인공지능 담론 등)에 있어서 매우 앞서나간 아이디어와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의 20세기 과학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그 결과로 제안했던 생태적 사유 방법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환경 문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근본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신과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 마음과 세계 전체를 통일시키는 인식의 전망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⁵⁰⁾

50)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7(2020), 42.

3.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

베이트슨에 의하면 모든 정신작용에는 아름다운 패턴과 짜임을 포함한 매우 체계적인 구조와 근원적인 본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트슨에게 정신 작용이란 데카르트로 표상되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구분 안에서 따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순환적으로 공유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며, 지속적인 정신과정을 함께 만들어간다. 그렇기에 베이트슨은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베이트슨은 정신과 자연은 필연적으로 통일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 둘의 통합된 세계관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책 ‘마음과 물질의 대화’를 썼다고 할 수 있다. 베이트슨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데카르트 인식론적 첫걸음은 물질로부터 정신의 분리, 그리고 생각한다 cogito라는 나쁜 전제에 기초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식론에 치명적인 전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를 연결시킨 용의 전제가 훨씬 건전한 첫걸음이라 믿는다. 용의 인식론은 물질이 아니라 차이의 비교에서 출발한다.⁵¹⁾

베이트슨은 이와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 - 1961)의 책 『죽은 사람을 위한 설법』 (*Septem Sermones ad Mortuos: Seven Sermons for the Dead*, 1916)에서 사용했던 플레로마(Pleroma)와 크레아투라(Creatura)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본인의 방식으로 물질과 마음의 대화를 시도했다.⁵²⁾ 많은 과학자, 생물학자들이 기원에 대한 질문들, 생명의 기원, 언어나 의식에 대한 기원의 문제에 대해 유물론적 과학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중, 몇몇 소수만이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하는 거대한 도전을 제대로 인식했다. 베이트슨은 그런 소수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 사이의 균열을 극복하고 점점을 만들어내기

51) Ibid., 35.

52)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7-28.

위한 도전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베이트슨이 어떻게 물질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하나로 엮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그가 채용한 칼 융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개념을 정리하고, 베이트슨의 독특한 사고 안에서 어떻게 이 두 개념이 전통적인 대립적 편견을 뛰어넘어 일치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마음과 물질의 대립을 넘어서서 베이트슨의 정신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고려해볼 것이다.

3.1.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일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에 대한 베이트슨의 새로운 개념적 구상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구분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이다. 그는 정신과 물질에 대한 전일성을 강조함은 물론이고, 이 두 구조의 결합과 연결을 통해 새롭게 자신만의 인식론을 전개해 나아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과정과 문화와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적 구조와 본질을 어떻게 명료하게 발견하고 진술할 수 있을가의 과제에 심혈을 기울인다.⁵³⁾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라는 개념은 융이 『죽은 사람을 위한 설법』이라는 책에서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세계와 죽은 세계로 묘사되었다. 베이트슨은 이 두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 플레로마는 힘과 충격만이 지배하는 물리적 영역으로, 크레아투라는 특징과 차이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⁵⁴⁾ 그러나 이 두 개념의 관계는 전혀 대립적이거나 위계적이지 않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고유한 정신을 소유한 하나의 살아있는 것으로 병합된다. 베이트슨은 이 대립의 문제를 매우 구체적이며 세련되게 통합하였고, 보바 더 아름다운 그의 ‘성스러움의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으로 전통적인 이원론을 완전히 극복하였다.

53)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267.

54)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8.

3.1.1. 칼 융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에 대한 베이트슨의 해석

사실 융이 처음 자신의 책 『죽은 사람을 위한 설법』에서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에 대해 소개하긴 하였지만, 그 개념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개념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베이트슨이 이 개념을 통해 본인의 정신과 마음의 일원론적인 인식론을 전개하기 위해 채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융 또한 정신과 물질이 하나의 세계에 포괄되어 있으며, 이 양자가 끊임없이 서로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⁵⁵⁾ 융은 과학과 종교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둘에 대해 양가적 입장을 취했다. 이미 융은 베이트슨보다 앞서 자연과학의 발전과 진보가 인간이라는 대상을 물리적으로 계량화하거나 법칙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인간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실존에 대한 해명은 결코 과학적인 조명에서 제대로 접근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융의 자각은 인간에 대한 종교적 해명과 궤를 같이한다.⁵⁶⁾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질에 대한 종교의 한계에 대해서도 융은 지적한다. 즉, 융에게 종교와 과학은 교집합보다는 대립항이 훨씬 더 많은 그룹이었고, 융은 나름대로 종교와 과학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베이트슨의 노력은 종교와 과학의 대립보다는 종교와 과학이 근본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초자연주의적(Supernatural)인 것과 물질주의적(Mechanical)인 것에 대한 전일적이며 통전적인 통합에 있다.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입장에 있어서 베이트슨은 융보다는 더 종교와 과학을 신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베이트슨은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대비 관계에 대해서 ‘마음과 물질의 대화’의 두 번째 장, <정신 작용의 세계>에서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플레로마는 한마디로 무생물계, 즉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에 의해 기술되는 영역이다.⁵⁷⁾ 이 영역에서는 물리적인 힘이나 충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하나의 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돌은 힘과 충격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돌 스스로 내부 조직에 명령 체계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거나, 움직임을 갖

55) 김태연, “마음의 종교와 마음의 과학: 칼 구스타프 융의 통합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7 (2015), 360.

56) Ibid., 358-359.

57)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31.

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정보가 받아들여질 시스템이 둘 안에는 없다.

둘은 사람에 의해서 묘사되거나 설명되어질 수 있고, 둘을 하나의 지표나 신호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둘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스스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플레로마의 세계에는 정보가 없다. 다만, 그 안에는 규칙이 존재한다. 물질의 영역은 그 규칙성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때로는 관성, 원인과 결과, 연속과 불연속 등의 물질 안에 내재한다.⁵⁸⁾ 그렇기에 우리는 플레로마의 세계를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규칙을 추리할 수 있지만,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베이트슨 플레로마라는 용어를 물리학이 기술하는 무생물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했다.⁵⁹⁾

이와 대조적으로, 크레아투라는 의사소통과 차이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설명의 영역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차이, 구분 정보에 의해 지배되고 구분된다. 크레아투라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유기적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진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⁶⁰⁾ 의사소통은 언어의 형태, 종교, 예술, 국제관계, 그리고 꿈, 환상, 상상 등으로 드러난다. 그렇기에 모든 비물질적인 영역을 크레아투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크레아투라의 영역에는 반드시 의사소통의 성격이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1.2. 두 개념의 상호연관성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로 나뉘는 것을 보고, 이 두 영역이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구분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구분은 단순한 외관적 구분일 뿐이다. 이것은 설명을 위한 구분일 뿐이며,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는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도 나뉘어지지 않는다. 모든 크레아투라는 플레로마 안과 플레로마를 통해서 존재한다.⁶¹⁾ 크레아투라가 정신의 영역이라면, 정신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플레로마, 즉 물

58) Ibid., 32.

59) Ibid., 32

60) Ibid., 33.

61) Ibid., 33.

질의 일정한 규칙과 배열이 필요하다. 융과 베이트슨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에 대한 이해를 김태연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융은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만남의 자리를 ‘인격’으로 이해하였다. 크레아투라는 차이와 분별의 세계이며 이 성격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구현되는 과정을 융은 ‘개성화’(Individuation)의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융에게 있어서 개성화는 개인의 인격이 통합된 전체가 되는 과정이며 이것은 피조물의 본질이다. 또한, 개성화는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유기적 직조의 과정이며, 플레로마의 영역에서 크레아투라의 영역으로의 성숙한 심화를 뜻하는 과정이다. 베이트슨 또한 시스템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두드러진 것을 ‘자아’로 바라보았다. 특히 베이트슨은 정신과 신체라는 전체적인 존재, 크레아투라와 플레로마가 만나는 만남의 존재의 자리로서 ‘자아’의 위치를 주목하였다.⁶²⁾

융과 베이트슨 모두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 두 개념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유기적으로 하나의 현실에서 상호 교차하거나 상호 내재 혹은 상호 교차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김태연은 두 학자의 이해를 조금 다르게 구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융은 이 두 개념의 조화를 ‘인격’을 갖춘 것으로 표현하고, 피조물은 이 두 영역의 만남과 교차를 통해 개성을 심화해나가는 존재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베이트슨의 이해는 인격의 심화보다는 두 영역의 만남을 ‘자아’로 표현하였다. ‘인격’과 ‘자아’라는 구분은 매우 큰 차이로 보여진다. 특별히 베이트슨에게 있어서 ‘자아’가 있는 것은 그 시스템 안에 ‘의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의식’이 존재하는 시스템, 자기 순환적으로 차이(정보)에 대한 선택(무작위적일지라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정신’ 또는 ‘마음’이 있는 존재이다.

베이트슨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더욱 아름답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은, 전철의 ‘저 밖의 별’에 대한 은유이다.

저 밖의 물리적인 것들은 플레로마의 세계이다. 예를 들어 ‘저 밖의 별’은 순수하게 플레로마적인 것이며, 그 플레로마적인 세계의 접근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62) 김태연, “마음의 종교와 마음의 과학: 칼 구스타프 융의 통합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364-365.

는 크레아투라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저 밖의 별’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활동은 크레아투라적인 것이다. 그리고 ‘저 밖의 별’을 나의 동시적 세계에 투사함으로 인해 구현된 저 별은,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접촉면으로서 등장한 관계적 사건(event)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의 물질과 정신이라는 정태적 도식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⁶³⁾

밤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별을 바라보며 느끼는 사람의 마음은 수년의 광년이라는 커다란 시간을 거쳐 우리의 눈에 피사되는 물질을 만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파악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과 의미로 다가온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별을 바라보는 장소, 함께 그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고양과 감격 그리고 추억으로 남게 될 하나의 사건이다. 여기서 무엇이 물질 혹은 플레로마의 영역이고, 또 다른 무엇이 정신 또는 크레아투라의 영역이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어떤 본질에 대해서 물리적인 인과관계나 법칙만을 설명하거나, 관념적인 인간의 언어나 예술만을 설명하는 것은 베이트슨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정신’과 ‘물질’은 반드시 통전적인 이해만으로 그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2. 살아있는 세상은 마음에 의해 구성된다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상호 연관성은 분명히 밝혀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이 두 개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베이트슨은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의 상호 연관성을 정신 또는 마음이라는 질서 체계를 통해 자신만의 인식론을 발전시켰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그의 시대에 엄격했던 하나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과학적인 설명을 할 때에는 정신이나 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궁극적인 원인에 호소할 수가 없었다. 모든 인과관계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흘러야 하고, 미래가 현재와 과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설명되어야 할 우주 안에서는

63)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연구: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63 (2013), 161.

신, 목적론, 정신의 가설을 세울 수 없었다.⁶⁴⁾

베이트슨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이 엄격한 가설에 대한 도전과 그 결과로 만들어낸 사이버네틱스적 인식 방법이다. 하나의 인식 방법으로서 사이버네틱스는 현재에 대한 미래의 영향을 자기 수정적 피드백 루프(self-corrective feedback loops)가 제공되는 시스템 안에서 궁극적 목적 또는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인과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면, 신과 같은 외부 요인 없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베이트슨은 위와 같은 기존의 금기에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살아있는 시스템 안에서, ‘정신(Mind)’라는 단어를 재정의하였다. 이 정신은 자기 교정을 위한 내재적 능력이 탑재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그의 책 ‘정신과 자연’에서 그는 ‘정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에 대해서 언급한다.

1. 정신이란 상호반응하는 부분 또는 구성요소의 집합체이다.
2. 정신의 각 부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반응의 방아쇠는 차이가 당긴다.
3. 정신과정은 방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4. 정신과정은 순환적 (또는 그 이상으로 복잡한) 결정의 연쇄를 필요로 한다.
5. 정신과정에서는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를 그에 선행한 사건의 변형(기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이러한 변형화과정의 기술과 분류는 그 현상에 내재한 논리계형의 분류 단계를 나타낸다.⁶⁶⁾

베이트슨은 위와 같은 정신과정을 통해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서 비물질적인 사상과 의사소통을 포함시킨다. 이는 기준에 비물질적 개념들, ‘사랑,’ ‘정신,’ ‘신성한 것’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여 현실 속에서 물질적인 현상이 발현될

64)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5.

65) Mary Catherine Bateson, “Angels Fear Revisited: Gregory Bateson’s Cybernetic Theory of Mind Applied to Religion-Science Debates,” Jesper Hoffmeyer ed., *A Legacy for Living Systems: Gregory Bateson as Precursor to Biosemiotics*,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6.

66)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112-113.

수 있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기준의 정신 체계 혹은 정신 질서가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며, 물질과 비물질이 통합된 하나의 체계 혹은 시스템을 보존한다. 그리고 베이트슨은 이것을 ‘정신’ 혹은 ‘마음’(Mind)이라고 부른다. 베이트슨에게 있어서 정신과 마음은 Mind라는 단어로 함께 표현되며 구분되지 않는다.

3.2.1. 마음: 관계를 연결하는 패턴

위의 제기된 마음에 대한 6가지 기준에 대해서 베이트슨의 책 ‘정신과 자연’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는 마음의 영역을 매우 엄격한 논리 기준을 가지고 섬세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기준 1: 정신은 상호 반응하는 부분 또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체이다.⁶⁷⁾

베이트슨은 정신은 분명히 부분들 사이의 연속적인 상호반응 속에서 작용한다고 천명한다. 이는 베이트슨의 기본적인 사유가 철저하게 관계론적이며 전체론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과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최소단위 안에서 더이상 분화되거나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하나의 복합체(그것의 크기가 크든 작든)가 그 안의 여러 부분의 상호반응으로 결합하는 상태가 정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⁶⁸⁾

기준 2: 정신의 각 부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반응의 방아쇠는 차이가 당긴다.⁶⁹⁾

상호 반응이 유기체 정신과정의 기본 조건이라면, ‘차이’는 정신과정의 출발점이다. 베이트슨은 칸트의 말을 빌어 차이에 대한 차이, 즉 정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67) Ibid., 113.

68) Ibid., 113-115.

69) Ibid., 116-123.

이 분필에는 무한한 차이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보다 큰 존재의 정신과정 속에서 효과적인 차이(즉 정보의 각 항목)가 된다.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차이가 바로 정보를 이루게 된다.⁷⁰⁾

이 과정을 통해 물리적인 차이(양)이 정신적인 차이(질)로 변환되면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차이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진입되고, 정신과정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차이는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차이를 만드는 차이는 정신세계에서 정보가 된다.

기준 3: 정신과정은 방계 에너지를 요구한다.⁷¹⁾

정신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차이와 정보는 말 그대로 데이터이지, 정신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는다. 베이트슨이 말하는 에너지는 단지 수도꼭지나 문을 여닫음으로 에너지 변화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의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이다. 베이트슨이 말하는 방계 에너지는 어떠한 물리적 역학에 의해 에너지의 흐름과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능과는 다른 걸을 가진 요소이며, 이미 환경에 만연히 내재되어 있는 근본 요소이다. 차이는 시스템 안에서 계기로서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시스템 내부는 반드시 정신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기준 4: 정신과정은 순환적(또는 그 이상으로 복잡한) 결정의 연쇄가 필요하다.⁷²⁾

전철은 베이트슨의 기준 4에 대해 ‘정신과정은 환경에 고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화 속에서 지속을 확보해내는 과정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⁷³⁾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입력된 정보에 대한 반응 속에서 ‘안정’을 이루며, ‘지속’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필수조건이다. 생물은 순환적이며, 더 나아가서

70) Ibid., 121.

71) Ibid., 123.

72) Ibid., 126.

73)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261.

그 이상으로 복잡한 결정의 연쇄에 의해 조직되며 존속된다.⁷⁴⁾

정신은 환경을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정보로 변환하고, 각각의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교정과 수정하는 기능을 확보한다. 베이트슨은 이것을 기계의 작동으로 표현하는데, 기계에 연료가 공급되면, 기계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활동에는 공급된 연료가 에너지화되어 기계를 잘 작동할 수 있게 전달하는 기능과, 그 기계가 계속적으로 작동하여 폭주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작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위치의 비유에 따라,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스위치가 연결되었을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서로 다른 논리계형의 변화이다. 즉, 정신과정을 위한 순환적 결정의 연쇄는 서로 다른 논리계형들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동시에 세밀하고 민감하게 조절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기준 5: 신경과정에서 차이의 결과는 그것에 선행하는 차이의 변형들(기호화된 것)로 볼 수 있다.⁷⁵⁾

베이트슨에게 정보는 차이와 그 차이가 잇달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차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기적인 시스템은 밖에 있는 신호들을 특정한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시스템 안으로 변형화(transformation) 혹은 기호화(coding)하여 정보로 저장한다. 여기에는 차이를 통한 정보라는 원인과, 차이의 변형으로 인한 결과가 존재하며, 이 사이에는 규칙적인 패턴(pattern) 혹은 행동연쇄(action sequence)가 있다. 정리하면, 저 밖의 정보, 그것이 인지되어 시스템 안으로 기호화된 정보, 그리고 저 밖의 정보와 안의 기호화된 정보로 인한 변화된 결과와 그로 발생하는 또 다른 차이는 각각 다른 계층(level)의 정보이지만, 그것들은 어느 일정한 규칙성을 담보하면, 패턴을 가지게 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형성한다. 특별히 고도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감각기관인지, 그리고 어떤 통로가 정보의 경로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74)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127.

75) Ibid., 134.

기준 6: 이러한 변형과정의 기술과 분류는 그 현상에 내재하는 논리계형의 분류단계를 나타낸다.⁷⁶⁾

논리계형의 분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차원적이며 다층위적인지 말해준다. 정보의 전달, 즉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전제된다. 첫째로, A가 B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B는 A가 보낸 메시지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A가 보낸 메시지를 B가 어떻게 기호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즉, 논리계형의 일치가 요구된다. 이를 베이트슨은 ‘메타 메시지(Metamessage)’라고 말한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컨텍스트(Context)’라고 한다. 관계(상황)가 바뀌면, 같은 메시지의 의미가 그 순간 달라진다. 메타메시지가 작용함으로써 컨텍스트 속에서 메시지가 분류되는데, 이로서 논리계형의 분류가 등장한다.

정신과정은 학습을 통해 다음 논리 계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베이트슨은 이에 대해 파블로프의 신경증 유발 실험과 하와이 해양연구소에서 행한 인간-돌고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증명한다. 하나의 논리계형에서 그 다음의 한 단계 높은 논리계형으로의 진보는 개개의 사건에 대한 정보에서 사건의 클래스에 관한 정보로, 혹은 개개의 클래스를 생각하는 것에서 클래스의 클래스를 생각하는 것으로의 진보이다.⁷⁷⁾ 이를 통해 우리는 정신의 진화 혹은 진보, 그리고 학습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정신의 진화, 정신의 창조적 사고는 무한히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무작위적인 과정(stochastic process)’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⁷⁸⁾

3.2.2. 베이트슨의 사이버네틱스 이론

위에서 제기한 기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베이트슨이 이야기하는 정신을 규정하는 논리의 질서는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베이트슨은 분명히 이 정신 질서 체계에 적용 가능한 실체들의 구분을 전혀 제한하지 않

76) Ibid., 139.

77) Ibid., 151.

78) Ibid., 221.

는다. 베이트슨은 이것을 광범한 체계들(systems)라고 말하는데, 이 체계들은 복합적인 유기체로 구성된 체계 또는 살아있는 부분과 살아있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체계,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부분이 없는 체계도 들어 있다.⁷⁹⁾ 이 체계를 갖춘 대상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순환적인 인과작용으로 자기 규제나 자기 수정을 통해 그 체계를 규정하고 보존한다. 이를 우리는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른다.

베이트슨은 인류학 연구의 연속선에서 사이버네틱스를 시스템의 형태와 패턴에 관한 연구로 정의하고 모든 영역을 정보의 발생과 전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이버네틱스의 주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라는 말인데, 베이트슨에 따르면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에서 순환하는 정보의 단위는 바로 이들 간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the difference that makes a difference), 즉 다름이 일으키는 상호 변환이다.⁸⁰⁾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순환 고리(Feedback Loop)로 된 회로이며 이 피드백 프로세스를 통해 항상성의 최적점을 찾아 나가며 안정을 유지하거나 어떤 변수를 극대화시켜 변화를 일으키는 식으로 그 시스템의 복잡성을 조직하고 증진한다. 이러한 자기 교정적 피드백 메커니즘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지각과 행위 또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회를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모두 그 시스템의 작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⁸¹⁾

베이트슨에게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의사소통 시스템에 대한 설명적 인식론이 되었다. 또한, 연결과 의사소통의 사이버네틱스 규칙이 이해되면, 정신과 물질, 자연과 문화와 같이,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에 기계에도 ‘마음’ 혹은 ‘정신’이 있을 수 있다. 베이트슨은 마음과 물질이 반드시 분리된다는 오래된 미신을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 극복해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상호 연결된 구성원임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79)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34.

80) Gregory Bateson, "The Cybernetics of "Self": A Theory of Alcoholism," *Psychiatry* 34(1971/1), 1.

81) 김성은, "사이버네틱스 서정: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백남준의 '마음' 접속사," 152-153.

3.2.3. 패턴들을 연결하는 패턴들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베이트슨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순환적 정보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인식하게 한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가 변형화 또는 기호화되는 과정을 거쳐 규칙적인 패턴 혹은 새로운 논리 계형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패턴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턴의 발견이자, 새로운 논리 계형으로의 진화과정이다. 즉, 정신과정은 끊임없는 새로운 패턴의 확장일 것이다.

패턴을 연결하는 패턴들은 순환적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연결한다. 이것이 세상이 유지되는 힘이며, 정신이자, 마음이다. 베이트슨은 자신의 이 아이디어로 자신의 인식론을 생태학이라고 지칭한다. 이 패턴들은 단순히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의 결합이나 일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패턴들 저변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베이트슨의 영성이 있다. 베이트슨은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시스템이론을 설명하면서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들을 구성하는 체계를 정신이라고 불렀다. 베이트슨은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말하는 정신, 또는 마음은 단순히 요소들의 순환적 패턴들의 결합을 넘어서는 것이다. 베이트슨은 살아있는 이 세계가 ‘정신과 마음의 유기체적 관계와 흐름’이라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통찰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연 과학적, 생물학적, 인류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세계를 조명하였다.⁸²⁾ 분명 베이트슨의 목적은 지구를 넘어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메타 패턴(Meta Pattern)을 발견해내는 데 있었다.

메타 패턴은 눈에 보이는 형태, 모양, 관계를 넘어,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보이지 않는 크레아투라의 영역의 패턴이다. 메타 패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정보를 볼 때 인지하게 되는 시각 너머의 관련성이다. 이것은 베이트슨에 따르면, A와 B의 관련성 혹은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토리’라고도 표현되며, 이 스토리는 인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신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⁸³⁾ 그리고 이 스토리는 컨텍스트를 특정한다. 그것은 스토리 배후에 있는 진화의 과정이다. A 또는 B가 발생하게 된 스토리, 그것은 수백만 세대라는 거대한 시간과 그 사이의 셀 수 없이

82)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연구: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177-178

83)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25.

많은 스토리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하나의 과정이자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이 컨텍스트는 의미를 발생시킨다. 나와 너 사이에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 없이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서로 바라봄은 ‘전이’라고 하며, 상호반응이라고도 한다. 즉, 컨텍스트 또한 보이지 않는 메타 패턴으로서 나와 너, 그리고 A와 B를 연결시키고 있다.⁸⁴⁾ 모든 정보전달에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것, 컨텍스트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 컨텍스트가 분류됨으로써 비로소 컨텍스트로부터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은 베이트슨에게 있어 핵심 논거이다.⁸⁵⁾

생물학자였던 베이트슨에게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메타 패턴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라마르크와 다윈의 진화론에 빗대어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가설과 함께 발전될 것 같지만, 베이트슨은 당시 생물학의 진화론적 관점들은 명백히 잘못된 논리계형에서 빚어진 인식론적 오류라는 점을 천명하며, 화이트헤드와 러셀의 ‘논리 유형 이론’을 자신의 인식론적 근거로 삼는다. 러셀의 논리 유형 이론의 핵심은 클래스(class)와 요소(members)의 위계적 분리이다. 클래스는 자신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위계의 지위가 서로 무너지고 모순될 때 역설(paradox)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이 위계가 무너지는 담론은 현실적 소통의 의미를 잃게 된다.⁸⁶⁾ 즉, ‘논리 유형 이론’에 따르면 클래스와 클래스의 구성원 사이에는 불연속이 있다는 것으로 논리 또는 정신은 각각 상위 또는 하위 클래스로 구분되고, 또한 새로운 정보의 변형화 또는 기호화의 과정을 통해 다음 논리계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3. 마음의 생태학

앞에서 베이트슨의 마음 혹은 정신(Mind)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마음(Mind)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사색하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 당시 시대 문명과 상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21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명, 인간과

84) Ibid., 27.

85) Ibid., 30.

86) Max Visser, “Gregory Bateson on Deutero-Learning and Double Bind: A Brief Conceptual History,” *Journal of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 39 (3), 272.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상적 근원이 될 마음의 생태학을 제공한다. 그의 사유는 단순히 20세기에 등장했던 수많은 생태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밑바탕에 있는 ‘생태학적 사유’와 ‘성스러운 것’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며,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사상적 오류와 생태적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제시한다.

베이트슨의 사유의 핵심은 ‘마음의 전체성에 대한 통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⁸⁷⁾ 베이트슨은 정신과정의 세계에 대한 단호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신과정의 세계는 철저히 동어반복적(tautological)이고 생태적이라는 것이다.⁸⁸⁾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정신과정이 철저하게 내적 일관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베이트슨의 정신과정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은 정신은 끊임없이 개별적 자기일관성을 수행해 나아간다는 점이다. 정신이 작동하는 토틀로지의 생태계는 그러한 개별적인 개성화의 복합적 수행을 품으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정신의 접촉을 포괄하는 거시적 일관성을 자체적으로 내함하고 있다는 점이다.⁸⁹⁾

베이트슨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Mind)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the Epistemology of the Sacred)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트슨은 물질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과 압력으로 대부분 조사하지 못한 미학과 종교,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추구했다. 이 지점에서 베이트슨의 사상과 종교가 만난다.

3.3.1. 성스러움의 인식론을 향하여

케서린 베이트슨에 따르면 베이트슨은 곤잘 시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케서린 베이트슨이 ‘마음과 물질의 대화’의 서론에서 베이트슨의 시를 하나 소개한다. 한국어 번역은 임의로 행을 바꿈으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원문을 첨부한다.

87)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43.

88)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244.

89)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연구: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166.

So there it is in words
 Precise
 And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will find nothing there
 For that is the discipline I ask
 Not more, not less
 Not the world as it is
 Nor ought to be-
 Only the precision
 The skeleton of truth
 I do not dabble emotion
 Hint at implications
 Evoke the ghosts of old forgotten creeds
 All that is for the preacher
 The hypotist, therapist and missionary
 They will come after me
 And use the little that I said
 To bait more traps
 For those who cannot bear
 The lonely
 Skeleton
 of Truth⁹⁰⁾

이 시를 읽으면 왜 베이트슨의 글이 고도의 함축을 품고 있고 때론 쉽게 이해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과학자이자 시인이었다. 그는 위의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Evoke the ghosts of old forgotten creeds’ 이미 잊혀진 오래된 신조의 유령들을 불러내려 하지 않았다. 과학자로서 뼈대 없는 초감각적, 초자연적 언어는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트슨은 ‘The lonely Skeleton of Truth’ 고독한 진실의 뼈대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명확성을 추구하고 글들을 남겼지만, 종교인들

90) Bateson, G.; Bateson, M.C. *Angels Fear: Towards an Epistemology of the Sacred* (New York: Hampton Press, 2005), 5-6.

도 과학자들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진실한 뼈대 위에 많은 살을 붙일 것이라는 예언을 던졌다. 그 살들은 이 뼈대를 아름답게 가꾸줄 것인가? 완전히 뼈대를 감추고 눈에 보이는 살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가? 이는 베이트슨이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에게 던진 충고이자 경고이다.

베이트슨이 만든 외로운 진리의 뼈대는 무미건조한 뼈대가 아닌 외로운 뼈대이다. 메탈라 생기 없이 죽어있는 뼈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뼈대이다. 그의 시적 감수성은 그의 이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베이트슨은 진리를 기술하고, 증명할 때 무미건조한 논리적 과정과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 진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풍부한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게 진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진리는 결코 무미건조한 기술로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 틀림없다.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베이트슨의 인식론을 물론, 베이트슨의 마음가짐까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베이트슨이 그리는 패턴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다.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패턴에는 분명 색깔이 있을 것이다. 베이트슨이 초자연주의적 견해와 물리적인 견해를 모두 버리고, 오직 그의 자연주의적이며 통합적인 인식론으로 그의 논리를 펼쳐나간 것에는 단순히 유기적 존재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패턴을 그려내는 것을 넘어, 그 패턴과 패턴을 잇는 선(line)을 더욱 아름답고 신성하게 엮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상호결합을 넘어서 더 아름다운 미적, 도덕적, 종교적 힘을 그 안에 담아내기 위함이다. 그의 진리를 향한 도전과 달음질은 이런 성격의 것이다. 그렇기에 베이트슨 안에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 같은 무미건조한 이론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신학, 공허와 자비가 없는 종교, 자기 수정능력을 상실한 영원한 진리를 향한 내적 일관성 없는 신앙은 더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3.2.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베이트슨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마음이자, 그 모든 마음을 논리 계형에 따라 구분하고 연결하는 커다

란 마음이다. 베이트슨의 이론에는 단순히 크레아투라적 접근 방식과 표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을 넘는 영성(Spirituality)을 함의하려는 시도가 많다. 그의 책들의 제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Steps to the Ecology of Mind*는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정형화된 인식론적 편견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이며, 유기체적 생태 의식이 포함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Steps라는 단어는 그러한 유기체적 생태 의식의 여러 단계들을 넘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꺾대를 보고 달려간 것처럼,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의지와 축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책 *Angels Fear*(Where Angels Fear To Tread의 축약⁹¹⁾)에도 두려움이라는 비물질적이며 정신적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베이트슨은 이 말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어릴적 바이올린 연주를 학습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느꼈던 두려움은, 자신이 바이올린에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이올린이 싫어서도 아니었다. 연주를 할 때, 음을 하나 하나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큰 흐름 속에서 음악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 자신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는 회상한다.⁹²⁾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한다는 것과 음악의 큰 틀에서 악보에 적힌 정확한 음의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주자의 음악적 해석과 그에 따른 변주라는 이중구속의 상황이었다. 베이트슨은 이 어느 한쪽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었던 딜레마적 상황을 바이올린 연주법을 배울 때 들어가기로 두려워한 영역이었다고 고백했다.⁹³⁾

베이트슨은 인간의 의식을 넘어 정신과 마음의 드넓은 세계를 향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사랑’이라고 말한다.⁹⁴⁾ 살아있음의 본질로서의 ‘마음’을 살아있음의 궁극적 태도로서의 ‘사랑’과 결합하여 그가 이해하고자 했던 정신과 마음을 표현한다. 베이트슨은 과감하게 정상과학에서 물질주의와 초자연주의로

91) 이 표현은 영국의 작가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 - 1744)가 그의 책 *An Essay on Criticism*(1711년에 출간)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이 문구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미련한 자는 천사도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곳을 향해 달려든다.)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where angels fear to tread’라는 표현은 현대에도 영국에서 영화, 음악 등의 제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92)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71-72.

93) Ibid., 72.

94) 그레고리 베이트슨/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673.

구분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던 옛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움을 넘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했다. 그는 사랑을 의식적인 차원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숭고한 컨텍스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⁹⁵⁾ 이것이 베이트슨의 위대한 통찰이자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와 붕괴의 근원으로서 육체와 마음, 물질과 정신, 인간과 자연의 분리, 지식과 지혜의 분리된 이해를 지적한다. 이 분리된 이해를 결합시키고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베이트슨 평생의 과업이었다.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스트휴먼시대에 우리가 회복 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베이트슨이 제시하는 ‘성스러움의 인식론’과 그리스도교 신학 사이의 일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베이트슨에게 있어 종교는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던 가장 큰 컨텍스트이자 보이지 않는 메타 패턴이다. 베이트슨의 사유는 종교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 줄 것이다.

95)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연구: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180. 각주 91번을 함께 참고하라.

4.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생태적 인식론으로 계시와 하나님 이해

베이트슨은 우리가 지구라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의 상호 연결된 구성원임을 깨닫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⁹⁶⁾ 우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상의 상호 연결과 연합은 베이트슨의 믿음과 상관 없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다만, 베이트슨은 이 진리를 자신만의 독특한 인식론으로 바라본 깊이 있는 사색가이자 학자이다. 4대째 무신론자였던 베이트슨은 정신 시스템의 총합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상’으로 보았고, 그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동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즉, 정신은 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상을 지속, 유지, 보존하는 원인이자 동력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주 작은 단위의 세포에서부터 아주 커다란 우주 전체의 생태 시스템에도 똑같이 내재하여 있다. 베이트슨은 결코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베이트슨은 신적 존재는 필연적이며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쪽의 입장에 가까울 것이다.

베이트슨에게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최상위 레벨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이다. 그의 생태적 인식론에 따르면 개인의 정신은 내재적이지만 육체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의 통로들과 메시지에도 내재하며, 개인의 정신이 하부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 그보다 더 큰 정신이 있다.⁹⁷⁾ 베이트슨에 따르면 이 정신은 신을 의미할지도 모르며, 전체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 시스템과 지구 생태계에 내재하여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말하는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할 수 없고, 정신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접근할 수 없다. 초월적인 신은 성립할 수 없다.’와 의미 상통한다.⁹⁸⁾ 즉, 전통적인 기독교의 초월적인 하나님은 베이트슨에 있어서 경험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일 것이다.

96) Noel G. Charlton, *Understanding Gregory Bateson: mind, beauty, and the sacred earth*, (New York: SUNY Press, 2008), 1.

97) 그레고리 베이트슨/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694.

98)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18.

20세기 이전까지 전통적 기독교에서 생태적인 이해와 개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⁹⁹⁾ 인간의 관심은 창조 세계보다는 18-19세기를 거쳐 인간 그 자신에게 대부분 관심이 쏠려 있었다. 종교적 인식 안에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의 중개자 혹은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자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보다 상위 개념이었으며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았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웠다.

베이트슨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정신과 마음에 관한 탐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제안한 접촉점은 예술, 시, 음악, 인문학, 종교였다. 특히 베이트슨에게 ‘종교’는 전체론적인 세계관을 뜻한다. 종교적 경험을 포함한 이러한 접촉점의 경험은 제한된 의식을 넘어선 마음의 전체성과 관련된 행위라고 베이트슨은 이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베이트슨이 강조하는 생태적 인식론의 근거이자 가능성을 제시하는 더 넓은 외연이다. 즉, 종교의 범주와 생태적 인식론이 작동되는 지평은 서로 다르지만, 이 양자는 결국 전체론적 사유와 지혜의 양식으로 상호 연결되고 귀속된다.¹⁰⁰⁾

베이트슨은 우리가 신성한 것, 우리 모두의 삶을 감싸는 정신과정의 통합된 짜임을 믿기를 바란다. 베이트슨에게 종교적 전통은 아주 방대하고 서로 잘 결합된 은유적 시스템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산이자 가장 짜임새 있게 결합된 종교는 그에게 있어서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 보존하는 오차 수정 장치이다.¹⁰¹⁾ 베이트슨은 이것이 반드시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무신론자의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거대한 시스템의 총체인 이 우주의 창조적 순환과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단 하나의 장치는, 종교밖에 없다. 즉, 베이트슨은 종교의 다양한 은유들은 이기적인 목적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요인, 또는 장치로 보는

99)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 1098-1179), 아시시의 프란치스코(San Francesco d'Assisi, 1181-1226), 그리고 켈트 그리스도교(Celtic Christianity) 문화 안에서 자연과 생태에 대한 깊은 고찰들이 있었지만, 주류 기독교 신학 안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100)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43-44.

101)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68

것이다.

4.1. 전통적인 기독교의 계시 이해

베이트슨의 사상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한 기술을 거부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명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가 뜻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신에 대한 신학적 기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에 관해서 기술을 하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초월적 하나님의 층위를 이 세상 전체로서의 시스템과 일치시킴으로써 전체 피조물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다만, 만물 안에 내재하시고, 만물과 함께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에베소서 4:6)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의 이분법적인 구분, 신의 절대적 초월성과 상대적 내재성, 계시의 신학과 자연의 신학, 신과 피조물, 영원과 시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과 같은 대립에 의한 종교적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 이분법적인 구분의 극복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4.1.1. 폴 틸리히의 계시의 현대적 의미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은 계시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¹⁰²⁾ 이는 그리스도교가 예수 이래로 200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계시의 총체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바로 이 계시 안에서 피조물은 초월적인 신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계시는 신의 본성과 세계의 역동적인 관계를 조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의 본성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피조 세계는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102) 미하엘 벨커/오성현 옮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론』, 21.

중요한 해석학적 문법을 제시한다.¹⁰³⁾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향해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발현되고, 피조 세계는 그 계시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 - 1965)에 따르면 계시란 하나님의 현현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주-객을 초월해 있는 신비이기에 계시는 신비의 현현이다.¹⁰⁴⁾ 이는 계시가 인간과 피조세계의 내적인 이해와 성찰을 넘어서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하고 신성한 현현을 뜻한다. 이런 이해에서 틸리히는 한발 더 나아가, 계시는 상호의존성 속에 있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누군가가 신비의 현현에 의해서 사로 잡히게 된다면 이것은 계시 사건의 주관적인 측면이다. 만일 계시의 신비가 누군가를 사로잡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계시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이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만일 어느 누구도 발생한 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 사건은 어느 것도 계시할 수 없을 것이다.¹⁰⁵⁾

이는 계시 사건이 단순히 일방적인 선포나 알림으로는 발생되지 않음을 뜻한다. 계시는 반드시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실재가 필요하다.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는 이 계시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면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실재이다. 계시의 내용은 신앙 공동체가 현현된 계시를 대면하고, 받아들임으로 계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나감으로 만들어진다.

틸리히는 계시에 대해서 본인 특유의 상관관계의 방법”(the method of correlation)으로 제안함으로, 그동안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본성과 피조물의 관계를 재해석했고,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호 의존적 주-객 통일의 방법으로 증명하려 하였다.¹⁰⁶⁾ 상관관계의 방법이란 신학의 영원한 상수인 메시지와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 쪽만을 배타

103)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31.

104) 유장환, “폴 틸리히의 주-객 통일성의 신학,” 「한국조직신학논총29」 (2011), 258

105) 폴 틸리히/유장환 역, 『폴 틸리히 조직신학』 I (2001), 184.

106) 유장환, “폴 틸리히의 주-객 통일성의 신학,” 251-252.

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양자를 상호 연관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신학 방법이다.¹⁰⁷⁾ 전통적으로 신학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방법과 위로부터의 방법으로 구분되어 왔다. 여기서 아래로의 방법은 인식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물음과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주관’으로부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위로부터의 방법은 인식 주관과의 특수한 관계를 배제한 채 신학의 영원한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에 ‘객관’으로부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¹⁰⁸⁾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관관계의 방법은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통일시키고 있는 주-객 통전적인 방법이다. 탈리히는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 이 양자를 상호의존 속에서 통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탈리히에게 있어 계시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함의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시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만일 어느 누구도 발생한 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 사건은 어느 것도 계시할 수 없을 것이다.¹⁰⁹⁾

4.1.2. 칼 바르트의 계시와 자연신학

위와 같은 계시에 대한 탈리히의 현대적 인식 안에서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언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즉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성서가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는 한계 때문에 계시와 동시에 은폐의 기능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¹¹⁰⁾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은총 없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을 구분한다. 그에게 이 두 세상은 분명히 단절된 세상이다. 이 세

107) Ibid., 252.

108) Ibid., 253.

109) 폴 탈리히/유장환 역, 『폴 탈리히 조직신학』 I, 184.

110)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 119-123.

상에 하나의 교차선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¹¹¹⁾ 바르트는 예수의 탄생 이후 30년을 “계시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의 생애 30년 만이 시간과 영원, 사물과 근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은폐된 교차선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¹¹²⁾ 즉,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두 은폐된 세계의 교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단절된 관계가 극복되는 사건이다.¹¹³⁾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 사건 안에서 신의 초월성과 인간의 개방성이 만나면서 계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바르트 또한 그의 책 『로마서』 두 번째 개정판에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고백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잊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말해야 한다. 곧 그분에 대해 우리가 전혀 겸손하지 않았고, 사려깊지 않고, 경악하지도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의 지혜는 모든 주어져 있는 것[소여성]의 근원이 주어져 있지 않음[비소요성]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렸다. 가장 명철한 인생철학도 모든 지식의 시초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잠 1:7]을 일찌감치 진단했다. 욥기의 저자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처럼 확 트이고 공정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직관의 거울 속에서 원형, 곧 직관 될 수 없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일찌감치 재발견했다. …… 우리를 우리의 한계와 대면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니요’는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작품에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고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종교적인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다.¹¹⁴⁾

바르트에게도 시간과 영원이 만나는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계가 만나는 교차선은 실제로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미리 선포된 것’이며,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¹¹⁵⁾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위의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았고,

111) 칼바르트/손성현 옮김, 『로마서』, (서울: 복있는사람, 2017), 143-144.

112) Ibid., 144.

113)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35.

114) 칼바르트/손성현 옮김. 『로마서』, 117-119.

115) Ibid., 119.

사려깊지 않았고, 경악하지도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었다.¹¹⁶⁾ 비록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순하게 성령론적으로 연결시키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파괴하였고, 성령의 거룩성과 신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세상의 역사의 죄성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비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세속세계에도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진리들과 말씀들과 빛이 있음을 고백했다.¹¹⁷⁾ 바르트는 결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직접 일치시키지 않았다. 바르트가 말하는 유비의 신학은 성령에 의해 촉발된 하나님의 나라와 유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¹¹⁸⁾ 또한, 유비의 신학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그 유비들은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촉발된 것이지만, 그 유비를 만든 자는 인간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것들을 성령론적으로 신성화시키는 것은 끝내 거부했지만,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과 성령에 의해 촉발된 인간이 하는 일은 전자와 분명히 다르다.¹¹⁹⁾ 이러한 관점에서 계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계시를 대면하고 세상에서 실현하는 신앙 공동체는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존재한다.

4.1.3. 여전히 남아있는 계시에 대한 질문들

틸리히와 바르트의 계시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계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신의 초월성과 인간의 가능성이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이라는 계시 사건을 통해 어떻게 현실과 세상 속에서 구체화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주어진 신학의 과제이다. 전철은 이에 대해 계시의 형식과 내용의 관점에서 이 과제를 분석한다.¹²⁰⁾ 그에 따르면, 3가지 단계를 통해 계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는, 첫째, 계시의 형식의 관점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관계 짓는 그 구체적인 작동방식, 둘째, 계시의 내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처한 여러 세계 지평에서의 특별한 계시 내용의 해석, 마지막으로 셋째, 계시의 변형의 관점에서 계시의 형식과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

116) Ibid., 119.

117) 김명용, “바르트의 성령론,” 「바르트 신학연구 제3집」(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177-178.

118) Ibid., 179.

119) Ibid., 179.

120)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35-37.

리는 어떻게 변모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계시의 형식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사유 방식, 즉 계시와 자연, 계시와 이성, 계시와 문화의 이분화는 오늘날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가지는,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하나의 단일자로서 존재한다. 계시의 수용자는 다양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분화하고 분열되지만, 이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여 세상의 처음과 끝으로서 존재하는 신적 존재는 늘 하나로 수렴된다. 신의 현실성은 모든 사회 문화적 다원성의 조건을 초월하고 포괄하는 궁극적 일자에 대한 고백이다.¹²¹⁾ 다수인 인간에게 신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이다.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위와 같이 신의 지위는 기존 입장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계시를 대면하는 인간과 피조 세계의 다수성의 본성에 있다. 피조물은 본성상 유한하며, 일시적이기 때문에, 늘 과편적이며 개별적인 실존의 성격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한히 다양한 피조물들과 접촉하고 대면하는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¹²²⁾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질문은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대한 피조물들의 인식과 현재화는 오직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향성 안에서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다. 피조 세계의 복잡적이며 다상황적인 현실은 아쉽게도 전통적인 계시의 이원론적 구분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은 탈리히와 바르트가 계시의 인식의 문제에서 뛰어넘고자 시도했지만, 여전히 주-객, 하나님과 피조물 등, 대립항의 도식 위에서 설명을 시도했기에 한계를 가진다. 그렇기에 계시에 대한 현상학적-해석학적 고려는 계시의 현현을 정신과학적-문화적으로 조명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¹²³⁾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계시와 체현의 상태를 반복하며 이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인간과 문화와 역사는 변화한다.¹²⁴⁾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한순간의 만남이 아닌 역사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체화를 통한 계시의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계시는 인간 범주인 시공간을 넘어 하나님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그리고 계시가 어떻게 온 우주와 역사에

121) Ibid., 36.

122) Ibid., 37.

123) Ibid., 38.

124) Ibid., 38.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리스도교는 늘 갖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 이 질문을 가지고 베이트슨이 구상했던 종교에 대한 생태적 인식론과 함께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계시의 현재적 의미와 현실성에 대해 베이트슨의 인식론은 그리스도교 계시에 대한 논의를 더욱 넓은 전망에서 다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4.2.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베이트슨의 생태적 인식론

신학은 탈근대의 간학문적 대화와 융합의 흐름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초학문이다.¹²⁵⁾ 과학과 신학의 전통은 그 기원이 같다. 과학은 그리스도교 전통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학문의 꽃으로서 신학은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오늘날 과학의 발흥 앞에 신학적 담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오늘날 세계는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방법론을 근거로 한 증명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 이러한 신뢰에는 분명 문제가 없지 않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그동안 교회가 보여주었던 권위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의 말씀과 초자연주의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신학 이론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신학은 보편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베이트슨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장 큰 힘이다. 종교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의 커다란 패턴이다. 그렇기에 베이트슨은 종교적 언어, 종교적 인식 등 종교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스러운 것에 대한 과학적 진술을 시도하였다. 믿음, 사랑, 소망과 같은 초자연주의적 언어들은 베이트슨의 입장에서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진술이 아니다.¹²⁶⁾ 여기에서 과학적 성과와 발전들이 신학적 세계관과 만나 서로의 이해를 넓혀준다.

이를 위해 신학은 구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신학이 요구된다.¹²⁷⁾ 전통적인 신학은 우리에게 훌륭한 종교적 유산들을 남겨주었다. 우리는 위대한 종교의 유산들을 오늘날의 현실과 창조 세계를 위해 책임 있는 신학적 진술을 펼쳐야 한다. 자연의 신학(*thologia naturae*) 담론으로서 물리적 세계를 기술하는 과

125) 전철, “자연의 신학’의 현대성 연구,” 「신학연구」 70 (2017), 49.

126) Noel G. Charlton, *Understanding Gregory Bateson: mind, beauty, and the sacred earth*, 159.

127) 전철, “자연의 신학’의 현대성 연구,” 50.

학적 성과를 신학의 재료와 문화로서 다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종교적 언어와 가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신학적 진술을 시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베이트슨의 사상이 주는 도움은 매우 크다.

4.2.1. 조롱받지 않는 하나님(the Unmoked God)

베이트슨의 사상은 정신 혹은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아주 특별하다. 그에게 있어서 마음과 정신은 구분되지 않고 Mind라는 단어 안에 수렴된다. 베이트슨은 마음과 정신의 본질에 관해 깊이 연구하면서 그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에게 있어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에서 동의어일 것이다. 이 단어들은 3장에서 다뤘듯이, 살아있음의 본질이자, 살아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마음 혹은 정신은 논리 계형에 따라 각각 크기와 단위에 맞는 수준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생태적 인식론의 출발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베이트슨이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통일성에 대한 갈망을 촉발한다.¹²⁸⁾

베이트슨은 본인의 과학적인 연구와 종교적 상상력을 연결시키는 여러 시도를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그의 책 『정신과 자연』 서론 시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곡』의 한 부분을 넣은 것이다.¹²⁹⁾ 인용된 본문은 피조 세계의 완벽하고 정교한 아름다움, 그리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아름다움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신’에 대한 송영이다. 베이트슨의 생태학적 인식론은 늘 눈에 보이는 표면 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본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밑바탕에 자리한다. 그리고 베이트슨은 그것을 단순한 플라토닉한 견해 또는 관념적 언어로만 규정하지 않고, 우리가 사물

128)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42

129)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지상 만물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플라톤 학파의 플로티누스는 꽃과 잎으로써 증명한다. 이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생명체가 이토록 완벽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야말로 곧 보이지 않으나 변함이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야말로 곧 보이지 않으나 변함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신으로부터 그것들이 나온 증거라고. -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The City of God)』에서, 그레고리 베이트슨/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11.

을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한다.¹³⁰⁾ 베이트슨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절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잃어버렸고 한다.¹³¹⁾ 또한,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통일을 요구하는 충동, 우리를 그 일부로서 포함하는 자연계를 성스러운 것으로 보려는 충동은 여전히 우리 마음이 있다고 주장한다.¹³²⁾ 베이트슨의 목표는 명백히 우리 안에 있는 성스러움을 발견해내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 성스러움은 정신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거대한 무작위적인 과정(the Stochastic Process)에 따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보의 진화와 발전에 따라 논리계형이 나뉘지고, 동시에 더 큰 정신을 향한 갈망을 품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정신을, 커다란 하나의 정신으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베이트슨에게 있어서 하나님, 곧 신은, 그가 평생 연구한 정신 체계의 총체이다. 베이트슨은 이 체계의 규모를 생태계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며, 그 안에 한 개인의 정신은 하위 체계를 이룬다고 주장한다.¹³³⁾ 그리고 베이트슨은 신 존재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 생물계의 커뮤니케이션 안에서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피조물의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메타 패턴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것은 베이트슨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거대한 생태계로부터 아주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메타 패턴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이 메타 패턴은 거대한 생물계를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¹³⁴⁾ 그리고 이 촘촘히 엮여있는 패턴들의 규칙성이 베이트슨에게 있어서는 신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베이트슨에 따르면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¹³⁵⁾ 베이트슨에게 있어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우리가 이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이론 안에서 시스템의 한 부분이 더 큰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한 부분이, 또는 더 낮은 유형의 논리계형이, 또는 더 작은 크기의 정신은 더 큰 시스템과 정신을 컨트롤 할 수 없다. 이것이 베이트슨이 말하는 조롱받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이다. 생태계 또는 생태계 너머의 정신 체계의

130) Ibid., 13.

131) Ibid., 30.

132) Ibid., 31.

133)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181.

134) Ibid., 190.

135) Ibid., 196-197.

크기를 가지시면서 모든 피조물과 연속적 연결(패턴)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 분은 베이트슨이 말하는 초월적이면서 곧 내재적인 하나님이다.

4.2.2. 계시 - 신과 피조 세계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계시에 대한 근원적 질문,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은 베이트슨의 사상과 만남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전통적인 계시에 대한 한계는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대한 피조물들의 인식과 현재화에 있었다. 그것은 곧, 피조물들의 인식과 현재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계시의 주체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향성 안에서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베이트슨의 대답은 모든 생명을 관통하는 정신과정의 체계적 관계를 담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안에 가지고 있었던 계시에 대한 개인적 실존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 즉, 개인의 주관주의적 종교 체험과 신앙에 근거한 잘못된 계시의 이해를 풀어준다. 그것은 계시의 근본 질서가 생명의 시스템 전체를 통해 사회 시스템과 지구 생태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임을 밝혀낸 것이다. 베이트슨은 자신이 이해한 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사이버네틱스적 인식론은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마음은 내재적이지만 육체에만 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육체 밖의 통로들과 메시지에도 내재하며, 개인의 마음이 하부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 그보다 더 큰 마음에 있다. 이 더 큰 마음은 신과 비교되며,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신으로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 시스템과 지구 생태계에 내재해있다.¹³⁶⁾

고도의 합리적 정신과 체계적 사유를 통하여 생명의 시스템이론을 구축한 베이트슨은 그 사유의 정점에서 신과 종교에 대한 통찰과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계시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게 계시를 새롭게 이해할 인식론적 틀을 마련해주었다.

136) 그레고리 베이트슨/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694.

종교는 역사 전체를 볼 때, 거의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사는 세계의 복합적인 규칙성과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서 존재해왔다. 종교는 확대된 은유이며,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통합된 복합성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¹³⁷⁾ 오늘날 종교는 이 통합된 복합성의 가치를 상실한 것에서 그 힘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각과 사유의 방식은 일치와 통합으로부터 해체와 분화의 방식으로 쪼개져 왔다. 그 결과, 궁극적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의 역할이 전혀 의미 없게 느껴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시의 의미를 개인주의적이며 현재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오늘날의 시도는 주관주의적이며 맹목적인 신앙인만 길어내게 되었으며, 계시의 영역을 초자연주의적 영역의 것에만 한정시켜 오늘날 현실 세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축소시켜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계시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점검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베이트슨에게 있어 인간의 가장 큰 병리는 교만이다.¹³⁸⁾ 우리는 신과 같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존재이나,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거대한 생태계와 자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하지만, 그 역할을 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베이트슨에 따르면 이것은 큰 병이자 잘못이다. 인간은 인간과 연결된 다른 정신과 자연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루려고 한다. 같은 논리 계형에 있는, 같은 시스템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인간은 같은 논리 계형의 부분을 침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없다. 여기서 시스템적 병리가 발생한다. 시스템의 질서와 조화가 무너지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는 반드시 재앙을 초래한다. 종교는 이것을 치료하는 구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¹³⁹⁾

하나님에게 있어서 계시란 자신의 드러냄이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계시의 수용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¹⁴⁰⁾ 여기서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의한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통한 더 큰 존재로의 진화이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와 러셀의 ‘논리 유형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베이트슨에게 인간의 계시 수용은 정신이 논

137)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62.

138) 그레고리 베이트슨/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736.

139) 그레고리 베이트슨/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263-264.

140)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50

리계형의 추상도를 획득하며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속성일 것이다.¹⁴¹⁾ 그리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속성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과정(the stochastic process)에는 반드시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141) 전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에코 종교론 연구: 마음의 생태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43 (2017). 63.

5. 결론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종교와 계시 그리고 생태적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접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생명의 위기가 일상이 된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생태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간다. UN을 비롯한 많은 세계기구와 국가들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 오늘날 종교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인식의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베이트슨의 새로운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의 사유는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2장에서 다루었던 베이트슨의 생애와 학문적 성과는 베이트슨이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학문을 해왔고, 그 여정이 무엇을 향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평생 자연 현상에서 드러나는 ‘패턴’과 ‘질서’를 깊이 연구한 학자였다. 특별히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메타 패턴’을 추구하고 이론화 하기에 힘썼다. 그의 사상은 생물학, 인류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는 좀 더 심원한 영역으로까지 접근하여 정신과 마음,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이론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내었고, 정신분석학에 있어서는 이중구속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처음으로 ‘정신분석학’의 병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의 연구와 학문은 점점 더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실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베이트슨은 그의 역작 『마음의 생태학』(*Steps to an Ecology of Mind*, 1972)을 출판하며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학문을 생태학(Ecology)이라고 지칭하였다. 그가 평생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커뮤니케이션 이론, 시스템 이론, 사이버네틱스 이론들은 이 생태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연과 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딸 캐서린 베이트슨의 도움을 받아 출간한 『정신과 자연』(*Mind and Nature*, 1979)에서는 ‘생태학’이라는 본인의 고유한 이론에 진화론적 관심과 이해를 첨가하여 정신과 마음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며 정신의 진화 가능성과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함께 설명한다. 이 책의 결론에서 언급한 천사들도 감히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은 다음 책의 제목이 되어, 『마음과 물질의 대화』(*Angels ear*, 1987)라는 책으로 출판된다. 이 책에서 베이트슨은 초자연주의(Supernatural)와 물질주의(Mechanical)에 양쪽 모두에 기반한 인간의 파괴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세계의 복

잡한 규칙성과 연결짓는 패턴으로서 종교적 은유와 표현을 통해 성스러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시도한다. 베이트슨에게 종교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증명 불가능한 명제를 가장 정교한 기술 노력마저 회피하지 않으면서, 가장 집요하게 파헤치는 특성을 가진 인지 체계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베이트슨의 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다양한 사상들은 천천히 곱씹으며 고려해야 할 분야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 가장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베이트슨 시대 당시 여전히 만연히 퍼져있었던, 데카르트의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적 구분으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다. 베이트슨의 목적은 이 둘의 통합된 세계관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융의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두 영역의 대화와 통합을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베이트슨에게 있어서 ‘의식’이 존재하는 시스템, 자기 순환적으로 차이(정보)에 대한 선택(무작위적일지라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정신’ 혹은 ‘마음’이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무엇이 물질 혹은 플레로마의 영역이고, 또 다른 무엇이 정신 또는 크레아투라의 영역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사라진다. 베이트슨에게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물리적인 인과관계나 법칙만을 설명하거나, 관념적인 인간의 언어나 예술만을 설명하는 것은 베이트슨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정신’과 ‘물질’은 반드시 통전적인 이해만으로 그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추구한 것은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이다. 성스러움의 인식론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바탕이 되어 ‘성스러움’을 추구한다. 베이트슨은 특별히 살아있는 시스템 안에서, ‘정신(Mind)’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하는데, 정신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6단계에 걸친 매우 심도있고 복잡한 과정을 제시한다. 베이트슨에게 있어서는 6단계의 엄격한 정신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자기 순환적·수정적 루프가 제공되는 것은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하여 모두 살아있는 정신이었다. 이 여섯 가지 기준의 정신 체계 혹은 정신 질서가 플레로마와 크레아투라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며, 물질과 비물질이 통합된 하나의 체계 혹은 시스템을 보존한다.

6단계의 엄격한 정신과정은 마음과 정신(Mind)을 정의하고 정신의 작동방식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베이트슨의 사유의 핵심인 ‘마음의 전체성에 대한 통찰’로 발전한다. 살아있는 정신과정은 동어반복적(tautological)이고 생태적이며 철저하고 일관되게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와 동시에 정신은 끊임없이 개별적 자기일관성을 수행해 나아간다. 이와 같은 인식론은 오늘날 통합된 모든 것을 해체하고, 학문적 분열을 일으켜 나아가는 현대 문명에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뼈가 없는 살이 가능한가? 사랑 없는 선행이 가능한가? 계시 없는 믿음의 행함이 가능한가? 성스러움의 인식론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이분적인 시선으로만 평가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내고자 하는 것, 이것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과 잘못된 이해에 따른 생태계의 재앙을 만나 다시 찾아보게 되는 살아있음의 본질로서 정신이며, 그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종교를 통해 본질을 향해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4장에서는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과 그리스도교의 계시를 함께 살펴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그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다만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마르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을 거쳐 근대의 칼 바르트와 에밀 부르너까지의 논쟁은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계시의 수용자인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피조물, 신앙과 이성, 믿음과 행위와 같은 대립항들이 발생하고 이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탈리히는 계시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통전적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였고, 바르트도 절대적 하나님의 계시사건을 말하면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절대자와 피조물이라는 계시의 주체와 수용자와의 관계 설정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론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베이트슨이 표현한 ‘조롱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가 평생 연구한 생태계 전체 시스템의 규모를 넘어서는 정신이다. 신은 하나의 거대한 정신으로 생태계를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정신을 함유하고 있다. 인간은 거대한 생태계 시스템의 일부이다. 인간의 정신은 거대한 신의 총체적 정신에 ‘함유되어 있지만, 또한 개별적인 개성화의 복합적 수행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신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거대한 생

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패턴들의 패턴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계시 사건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만 전달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복합적인 피조 세계의 현실에 끊임없이 계시와 체현의 상태를 왕복하며 상호작용한다.¹⁴²⁾ 거대한 생태적 시스템 안에서 신과 피조물은 접촉하고 만난다. 여기서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대립적 간극은 소멸된다. 그러나 이 극복은 계시 사건의 역사적인 지속과 체화를 요구한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늘 계시와 응답의 상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더 큰 정신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역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분명 계시의 궁극적 구현은 우주와 역사의 온전한 구현을 지향할 것이다.¹⁴³⁾

이제 전통적인 계시와 자연, 초월과 내재와 같은 이분법적 이해는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생태계적 시스템의 부분과 전체를 관장하는 본성으로써 하나님과 계시의 이해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학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지속적인 계시 사건과 함께 미래를 조명하고 변화시켜나가는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계시라는 고양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생명의 본질과 의미를 깊이 해석하고 새로운 지혜와 가치를 발굴하여 더 나은 세상과 성스러운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의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

142) 전철,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37.

143) Ibid., 38.

참고문헌

<1차 문헌>

- Bateson, Gregory. *Naven: A Survey of the Problems suggested by a Composite Picture of the Culture of a New Guinea Tribe drawn from Three Points of View*.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 _____. *A Sacred Unity: Further Steps to an Ecology of Mind*. Michigan: Cornelia & Michael Bessie Book, 1991.
- _____.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_____.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 New York: Hampton Press, 2002.
- _____. Donaldson, Rodney E. (ed.). *A Sacred Unity: Further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Hampton Press, 2005.
- _____. & Bateson, Mary Catherine. *Angels Fear: Towards an Epistemology of the Sacred*. New York: Hampton Press, 2005.
- _____/홍동선 옮김. 『마음과 물질의 대화』.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3.
- _____/박지동 옮김. 『정신과 자연』. 서울: 까치, 1998.
- _____/김주희 옮김. 『네이븐』. 서울: 아카넷, 2002.
- _____/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서울: 책세상, 2006.

<2차 문헌>

-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7.
- 미하엘 벨커/오성현 옮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칼 바르트/박순경 옮김. 『교회 교의학 I-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_____/황정욱 옮김. 『교회 교의학 II-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_____/신준호 옮김. 『교회 교의학 I-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황정욱 옮김. 『교회 교의학 II-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폴 틸리히/유장환 옮김. 『조직신학 I』.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_____/_____. 옮김. 『조직신학 II』. 서울: 한들출판사, 2003.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 한국바르트학회. 『바르트 신학연구 제3집』.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 Brand, Stewart. *II Cybernetic Frontiers*. New York: Random House, 1974.
- Charlton, Noel G. *Understanding Gregory Bateson: mind, beauty, and the sacred earth*. New York: SUNY Press, 2008.
- Harries-Jones, Peter. *A Recursive Vision: Ecological Understanding and Gregory Bates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5.
- _____. *Gregory Bateson: Essays for an Ecology of Ideas*. Cambridge: Imprint Academic, 2005.
- _____. *Upside-down Gods: Gregory Bateson's World of Difference*. New York City: Fordham University Press, 2016.
- Jesper Hoffmeyer. *A Legacy for Living Systems: Gregory Bateson as Precursor to Biosemiotics*. Lond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8.
- John, Brockman, et al. *About Bateson: Essays on Gregory Bateson*. New York: E. P. Dutton, 1977.
- Lipset, David. *Gregory Bateson: The Legacy of a Scientist*. Boston: Beacon Press, 1982.

<논문·자료집·기사>

- 김성은. “사이버네틱스 서정: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백남준의 ‘마음’접속사.” 「NJP 리더 no.7 -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2017), 147-166.
- 김태연. “마음의 종교와 마음의 과학: 칼 구스타프 융의 통합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7 (2015), 356-384.
- 유장환. “폴 틸리히의 주-객 통일성의 신학.” 「한국조직신학논총」 29 (2011), 249-279.
- 전 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의 생태학.” 「철학연구」 86 (2009), 249-274.
- _____. “자연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111 (2009), 265-287.
- _____.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성스러움의 인식론 연구: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63 (2013), 155-185.
- _____.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에코 종교론 연구: 마음의 생태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43 (2017), 51-86.

- _____. “자연의 신학과 자연의 과학.” 「신학연구」 71 (2017), 155-79.
- _____. “자연의 신학’의 현대성 연구.” 「신학연구」 70 (2017), 45-73.
- _____.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 자기비움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하여”. 「신학과 사회」 31 (2017), 9-40.
- _____. “종교와 과학의 거울로서의 생태문명.” 「신학연구」 73 (2018), 7-28.
- _____. “계시와 인식의 생태적 관계론 연구 -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7 (2020), 31-55.
- 전철, 홍성욱. “과학기술학(STS)의 관점에서 본 종교와 과학.” 「신학연구」 73 (2018), 29-53.
- Basham, Richard. “Gregory Bateson (1904-1980): Obituary.” *Oceania* 52 (1981), 1-5.
- Bateson, Gregory. “The Cybernetics of “Self”: A Theory of Alcoholism.” *Psychiatry* 34 (1971), 1-18.
- Bateson, G., Jackson, D. D., Haley, J., & Weakland, J.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ioral Science* (1956), 251-264.
- Hawkins, Peter. “A Centennial Tribute to Gregory Bateson 1904-1980 and His Influence on the Fields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Action Research.” *Action research* 2 (2004), 409-423.
- Keesing, Roger M.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Gregory Bateson.” *American anthropologist* 76 (1974), 370-372.
- Lipset, David. “Author and Hero -- Rereading Gregory Bateson: The Legacy of a Scientist.” *Anthropological quarterly* 78 (2005), 899-914.
- Mathur, Piyush. “Gregory Bateson, Niklas Luhmann, and Ecological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 Review* 11 (2008), 151-175.
- Rappaport, Roy A. & Levy, Robert I. “Gregory Bateson, 1904-1980.” *American Anthropologist* 84 (2004), 379-394.
- Slobodkin, Lawrence B. “Mind, Bind, and Ecology: A Review of Gregory Bateson’s Collected Essays.” *Human Ecology* 2 (1974), 67-74.
- Stagoll, Brian. “Gregory Bateson (1904 - 1980): A Reappraisal.”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9 (2005), 1036-1045.
- _____. “Gregory Bateson at 100.”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7 (2006), 121-134.
- Visser, Max. “Gregory Bateson on Deutero-Learning and Double Bind: A Brief Conceptual Hist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39 (2003), 269-278.